

2010 한국경제학회 Summer Camp 참관 후기*

박 신 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북한(경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경제학회의 Summer Camp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던 북한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어서 참석을 망설였지만 참석하고 나서는 5시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Summer Camp 동안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논의 되었지만 토론자로 참석하신 이해정 교수님의 “북한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해 ‘지대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시경제학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병연 교수님께서 계량경제학을 통해 이행기를 겪은 국가들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들을 발견하고 현 시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감정적인 보도만을 접할 수 있던 북한 문제를 경제학자들이 환부를 명확하게 짚어내고 진단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과학의 여왕’이라는 경제학의 진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 통일 편익과 통일비용을 정교하게 추정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 경제학계의 큰 당면과제일 것입니다.

세션에서 토론되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고 학우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것 또한 Summer Camp가 주는 매우 큰 혜택이었습니다. 교류했던 내용 중 첫째는 무력충돌이나 급진적 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대다수의 생각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패널로 참석하신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문수 교수님께서 급진적인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 2010 한국경제학회 Summer Camp는 2010년 7월 27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병연 교수님께서서는 급진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단순한 치킨게임(마주보고 차량을 달리면서 먼저피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에서 참여자가 혼합전략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두 차량은 충돌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합리적인 전략을 수행하더라도 결과는 매우 나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를 전쟁보다 선호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전쟁은 충분히 발생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급진적 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매우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동일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략을 수립해본 경험은 돌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모색할 수 있게 만드는 필요조건 일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붕괴가 미치는 경제적 충격은 캠프에서 다루었던 수준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연 교수의 실증분석에서 대상이 되는 국가들 중 상당수의 북유럽 국가들은 북한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군사적 충돌이나 대규모 기아발생 같은 ‘급변상황’은 겪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변상황은 소련붕괴의 충격 보다 훨씬 큰 ‘재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제이행을 이미 겪은 국가들을 통해 도출된 추정치를 이용하여 구성된 급진적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는 급진적이지 않은 시나리오 일 수 있으며, 실제로는 더 급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있으나 지방재정의 부실과 각종 공기업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도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매우 큰 비용을 지출 시키는 통일비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상태라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국가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은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고일동 박사의 발표를 통해서 해외의 신용평가 기관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급변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국정부의 대응여력’을 위해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과제는 건전한 국가재정입니다.

넷째로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김병연 교수의 발표 및 고일동 박사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급진적인 통일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니다. 따라서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북한의 ‘초기조건’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세션을 통해 ‘통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열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제의 필요성을 북한주민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안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 지도부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개방 및 시장경제의 도입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현 체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일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의 기득권 및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 보장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지정학적 지대추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냉엄한 현실에서 '차가운 머리'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시장 참여자로서 '최적화'원리에 의해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한양대 장형수 교수님께서 남북통일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는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참여한 학생들도 크게 동감했습니다. 비단 외교적인 문제뿐 아니라 남북경협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도 '후생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주도로 남북경협을 하는 것은 언젠가 통일이 되게 된다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언젠가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와 국내 기업에게 이윤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정부가 남북 경협과 교류를 주도하는 것은 통일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득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본투입은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가가 이윤극대화 측면에서 철저하게 고려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충분히 매력적일 때 발생한 투자야말로 장기적으로 남북한 모두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